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배로 친다며 뚝을 올린 지 5년 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표류 중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3년에 가까운 허송세월은 전당 건립의 차질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적지 않은 폐해를 야기했다.

광주의 '잃어버린 3년'

시민들이 차량 통행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 일대 상가들이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일이다.

시민의 대표적인 지역 정치권도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동구 출신의 박주선 의원은 제외하면 7명 의원 모두가 '남의 일'로 여겼던 게 사실이다.

고통 담보로 한 허송세월

지난 2008년 6월 5·18 구속부상자회 등으로 구성된 '구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2년 여만에 별관을 부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공동대책위로 부터 역할을 위임 받은 시·도민대책위가 이마저 아니라고 하니 다시금 표류

시민단체를 대표한 시·도민대책위 역시 위상에 걸맞은 처신을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계산이 부른 폐해

대책위가 철회 이유로 아시아중심도시 추진단이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광주시와 합의할 당시 자체 내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

이제 구 도청 별관문제는 일방적인 '아니다'나 '언제까지'만 있을 수 없다. 도청 별관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장과 의회의장, 이 지역 국회의원 8명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가 나선 만큼 시·도민대책위와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여수산단 또 정전 이번엔 꼭 원인 밝혀야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17일 정전사고가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정전으로 20여 개의 석유화학업체 공장이 멈춰 최소 수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에 따른 대책이나 사후관리가 치밀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사고 당시에도 산단 내 일부 전력공급체계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당시 정부와 한전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었다.

정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근원적인 처방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관계자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함은 물론이다.

광주 R&D특구, 우수기업 유치가 열쇠다

지식경제부가 이를 전 광주·대구 연구개발(R&D)특구 추가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5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6년 만에 특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광주가 이제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결어 세계적인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특구 사업이 완료되면 약 15조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만~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구는 대학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혁신 주체와 지원시스템의 체계화·점진화를 통한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특구는 특히 기반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을 국가가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의 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수도권이 광주 특구보다 여건이 낫다면 국내 외 자본이 그 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구에 걸맞게 과감히 규제를 없애고,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치를 선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류동훈



최근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필자에게는 하나의 일과가 생겼다. 스마트폰은 인터넷 유튜브 접속이 수월하기 때문에 손쉽게 동영상 방송을 볼 수 있다.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모자나 티셔츠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만든다.

아시아문화도시의 '뽀로로'

대중컨텐츠센터 체험행사서 가족들과 뮤지컬을 보며 찍어둔 영상물과 함께 보여주면 아이들은 열광을 한다.

낭하는 어머니'에 맞춰 아이가 춤을 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한 번씩 보여 준다.

아쉬이문화도시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벌써 8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우려곡절 속에 우리에게 꿈과 신바람이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우리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한 문화를 함께 누릴 때 행복해지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과학의 법칙이다.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클럽을 신는 코너입니다.

선진국처럼 출산정책 정부가 적극 나서야

최근 일본에 갔다가 임신부가 있는 일본 가정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다. 일본 정부가 임신부에게 쏟아내는 서비스를 지켜보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산 후에도 시정 직원이 매달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검사하고, 아이의 예방접종과 육아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병원이 대략 30만원 정도 나온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6만원 수준으로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겁나고 아이가 있더라도 양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일본의 출산 정책이 너무나 부러웠다.

기고

나경택



올 겨울 잦은 눈으로 교통사고, 낙상 사고도 많고 감기환자까지 급증해 병원 응급실마다 북새통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설경이 그려내는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볼 때는 그저 행복하지만, 이내 걱정과 우려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타운의 현실이다.

이곳은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눈길, 빙판길 낙상사고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겨울의 눈 오는 날

힘들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힌 몇몇 직원들을 보면 참으로 대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필자도 눈 오는 날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같이 제설작업을 하는 입장이기에, 물어볼 자격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용기를 내 뚫는다.

설경(雪景)을 보는 마음

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는 아침이면 남구 빙고골타운과 북구 효령타운 전 직원들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오전 7시까지 출근을 한다.

는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에게 눈 오는 게 좋으냐고 물어 물어본다.

평소 같으면 미니스커트를 곁에 차려 입었을 텃쟁이 여직원도 눈 오는 날은 작업하기 좋은 차림새로 출근한다.

직원들은 답한다. "갑나요.", "눈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일찍 못 일어날까 봐 뽀로로 잠을 깬다.", "그래도 아직은 철이 없어 눈 오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벽 눈길을 헤치고 달려오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타운에 내리는 눈! 결국, 재단 일꾼들이 따뜻한 가슴이 녹여내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 30cm 정도의 눈이 쌓였을 때는 무거운 눈을 치우는 게 너무

<빙고골노인복지재단 기획관리본부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진(晉) 혜제(惠帝) 사마표(司馬表·259년~306년)은 선천적으로 우둔했다. 어느 해 한 지역에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굶어 죽자 대책을 세우기 위해 관리들이 모였다.

최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됐던 정동기 전 대검찰장이 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2007년 11월 대검찰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원에서 일하며 7개월간 약 7억 원의 빚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왕제가 민초에게 관심을 갖는 듯하자 관리들이 반가워 대답했다.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억 원을 급여로 주고받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해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인죄인 물가와 교육비 부담, 실업의 고통에 허덕이는 민초들의 팔과 눈물을 짐심으로 닦아줄 수

곡식 대신 고기죽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는 말인데, 프랑스 국민이 먹을 빵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을 듣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부(富)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저 높은 곳의 부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아직까지 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Table with 2 columns: Light and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